

유엔여성기구 소개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2010년 설립된 국제연합 기구(“유엔여성기구”)는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글로벌 챔피언입니다.

유엔여성기구는 유엔회원국이 성평등 달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및 시민 사회가 협력하여 이런 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법과 규제를 개선하고, 전 세계 여성이 진정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원합니다. 유엔여성기구는 전 세계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비전을 모든 여성의 삶에서 실현하고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지지하고자 다음 네 가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합니다.

- **거버넌스 및 공적 생활 참여:** 여성이 의사 결정에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인 법, 정책, 예산, 서비스, 또한 책임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 여성이 소득의 안정성, 좋은 일자리, 경제적 자율성을 누립니다.
-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여성이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
- **여성, 평화, 안전, 인도주의적 활동과 재난 위험 경감:** 여성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재난 회복력을 구축하는 일에 기여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자연 재해 및 분쟁 방지와 인도주의적 활동으로부터 동등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유엔여성기구는 2030 어젠다와 관련된 모든 고려 사항과 협약에서 유엔 시스템의 성평등 증진 활동을 조율하고 장려하며, 성평등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핵심 요소로 만들고 보다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기위해 노력합니다.



“2030년까지 약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할 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영역이 바로 성평등 달성입니다. [성평등에 관한 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 5번의 지표 18개 가운데 단 1개만이 ‘목표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 시마 바하우스 유엔여성기구 총재

아시아 및 태평양의 지역적 맥락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며,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성평등의 촉진과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및 정책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부터 여성의 경제적 권한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문에서 정책과 이행 간의 커다란 격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고용 안정이나 사회 보장 없이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돼 있는 아시아 태평양은 1990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든 유일한 지역입니다. 여성은 빈번한 자연 재해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2021년 여성살인(femicide)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은 우리 모두의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이 모든 사람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진전 속도로는 성 평등을 달성하기까지 약 3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00년은 너무 긴 시간이라는 데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 유엔여성기구 친선대사 앤 해서웨이, 2022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B20/G30 정상회의 연설

대한민국 서울에 출범한 성평등센터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2022년 한국 여성가족부의 지원 하에 서울에 설립된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이하 ‘센터’)는 ‘지식 및 파트너십 허브’로서, 연구, 교육 훈련, 지식 공유, 네트워킹 활성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을 전파하고, 유해한 사회적 규범을 바꾸며, 여러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성평등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첫 유엔여성기구 전문센터 (Centre of Excellence)로서, 연구-교육훈련-대외협력관계를 큰 축으로 유엔여성기구의 전문성과 기존 네트워크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음 활동을 수행합니다.



정부 기관, 학계, 시민 사회,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전문화된 젠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구를 수행하고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성평등 관련 통계 활용을 장려합니다.



성평등 달성을 위한 다자간 파트너십 구축과 다양한 협력을 촉진합니다.



사진: 유엔여성기구/Jaeki Kim

또한 성평등을 개선한 한국의 전문성과 인력을 활용하고, 유엔여성기구의 지역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모범 사례와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2022년에 다음과 같은 3개의 주요 주제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그룹 및 기관 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 기후 변화, 환경, 재난 위험 경감 (2022년 여성지위 위원회 핵심주제)
- 성평등 데이터 및 통계

2023년에는 ‘여성과 기술’ 등, 국제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에 관하여 연구, 성인지 통계, 교육-훈련, 대외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의 성평등센터를 통해 유엔여성기구와 한국은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더 기여할 것입니다.



사진: 유엔여성기구/Ahjung Lee



사진: 유엔여성기구/Harin Katipearachchi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03188) 서울시 종로구 38 서울글로벌센터 12층
전화: +82 2 720 7228 | 이메일: coe.korea@unwomen.org
<https://rok.unwomen.org>